

교회 목표

- 1. 천국일꾼을 키우자
 -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 중헌

발행인 : 신성종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중헌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FAX : 563-3932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

교회 입장 대내외에 천명

교회 재산, 관계 당국 승인 받아 완전 마무리 기도해준 전국 교회 성도들에게 심심한 감사

본 교회 당회는 지난 4월 11 일자로 우리교회 입장과 이종운 씨 사태에 대한 사건 전말을 대내외에 천명키로 했다.

동 사건 전말에는 사과와 감사, 그 동안의 경과, 이종운씨의 도덕성과 신실성 문제, 사면 처리, 교회 재산을 가로채려는 음모, 제2대 위임목사로 신성종 목사 청빙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전국 교회 성도들의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게 된 이유를 “이종운씨는 자기의 잘못을 은폐하고 계속 교계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부끄러운 일이지 만 지면을 통해 밝혀주는 것이 사건 마무리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교회의 입장을 천명한다.”고 밝히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했던 재산 문제는 “충현교회 당회가 새롭게 선정한 임원 명의로 재단법인 충현교회 유지재단, 복지법인 충현복지재단, 제3목양관에 관한 등기를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아 1992년 3월 4일에야 완료하게 되었다.”고 했다.

또 “충현교회의 어려운 시련을

염려하시면서 가까이에서 혹은 멀리 해외에서 기도로서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성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끝맺었다.

한편 지난 4월 6일(월) 오전 7시 당회장실에서 교계 신문사 및 방송국 편집국장·보도부장 초청 기자회견에서 교회 입장 천명을 당회서기가 소상히 설명하고, 당회 공식 문건인 성명서를 광고로 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하므로, 부득이 본 주간 중헌에 사건 내용을 전면계재하였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교회입장 전문 4면에 게재>

카메라 쫓점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정성으로 하나님의 성호와 은총을 참미하던 제6회 교구찬양대회(4월 5일 개최).



▲4월 5일 배가운동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충현인들은 “사람을 데려다가 주님의 집을 가득 채우리라” 다짐하였다.

충현 40년사 편찬소위원회 구성

1993년이면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과거 목회 행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한국 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 교회에 대하여 제사장 교회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충현 40년사”를 발행키로 하였다. 이에 지난 4월 1일 당회에서 충현 40년사 편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에 조선근 장로를, 실무간사에 이형수 집사를 각각 임명하였다.

'92 고난주간

“우리 위해 돌아가신 예수”

17일은 전교인 금식일, 19일은 부활절

오늘(4월 12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다. 이 기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교회는 17일(금)

을 금식일로 선포한다. 이날 세계 금식을 원칙으로 하되,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한끼나 두끼 금식을 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편 19일(주일)에는 금식미나 이에 해당하는 헌금을 하나님

께 드리게 된다.

고난주간 다음날인 4월 19일(주일)은 부활절이다. 이날 새벽에는 전국 교회가 연합으로 여의도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 5시에 본당에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린다.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1, 2, 3, 4부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고, 교회학교는 각 부서별로 계란 콘테스트, 찬양 대회, 성경이야기 대회 등을 개최하게 된다.

청지기훈련 은혜 가운데 진행

이번 주엔 7,8,9교구

참가신청은 수요일까지 사무국으로

지난 4월 2일에 시작되어 두 차례의 훈련이 실시된 청지기훈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제1교구를 비롯하여 여섯 교구가 훈련에 참가하였고, 이번

교회학교에서 피아노 기증 요청

교육위원회는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 사용할 피아노를 기증할 독지가를 찾고 있다. 그동안 사용해 오던 피아노들이 오래되어 고장이 잦아 그 가운데 3대를 부득이 새로 교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뜻이 있는 성도들은 관리국(교육관 102호)으로 연락바란다.

의료전도부

주일 진료 성황

의료전도부(부장 손철 집사)에서는 지난 3월부터 주일 진료를 다시 시작하였다.

진료 시간은 주일 3부 예배 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장소는 선교관 204호이다.

충현프리즘

◎...6회째 치르어졌던 교구찬양대회는 지난 5일 막을 내렸다.

예년과는 달리 대회 일정을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위하여 주일 오후 시간으로 정한 일과, 지정곡없이 자유곡만으로 합창 경연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확실적인 유니폼 착용을 강요하지 아니하고, 교구 스스로 자유로운 복장으로 무대에 설 수 있게끔 배려했다

는 것이 특색이었다. 그뿐 아니라 은혜와 찬양과 질서를 위하여 약 3시간 30분 동안 모든 찬양대원들이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끝까지 감상하고, 심사평을 들으며 시상식까지 잘 마쳤다는 것이 성공된 찬양대회임을 입증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질서 의식도 높아져, 한국 한국 찬양이 끝날 때마다 찬사와 박수가 흐트러진 모습은 충현인의 긍지와 자부심의

극치였다.

이번 대회는, 악보를 전혀 보지 않고 모든 교구가 암송으로 찬양을 했고, 어떤 교구는 무반주합창으로, 그리고 어린이와 함께 합창한 교구도 있어 매우 이채로웠다.

교구 식구들의 그리스도안에서의 단합과 화목, 친교를 주목적으로 개최된 교구찬양대회는 상당한 수준작이었다.

◎...청지기훈련이 계속되고 있다.

교구에 속한 직분

자, 그리고 일반 성도가 어떤 제한 규정 없이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는 청지기훈련은 교구마다 큰 호응을 받아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충현기도원에서 3백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예년과 달리 주강사를 정점으로 은혜의 시간과 특별교육시간으로 분류, 진행되고 있는 이 훈련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정된 날짜에 교구식구들의 빠짐없는 참석을 주최측은 바라고 있다.



충현강단

신성종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世系)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마1:1~17)

요한계시록 4장 17절에 보면, 사자, 송아지, 인자, 독수리 등 네 가지 생물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에 의하여 마태복음을 사자복음, 마가복음을 송아지복음, 누가복음을 인자복음,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사자복음인 마태복음에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위엄이 잘 나타나 있고, 송아지복음인 마가복음에는 희생하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이 잘 나타나 있으며, 인자복음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인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독수리복음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서이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의 복음서이며, 누가복음은 헬라인의 복음서이고, 요한복음은 교회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육적인 예수님에 관하여, 요한복음에는 영적인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흔히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나가기로 결심합니다. 창세기가 출애굽기는 신앙이 적은 사람이라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나 번제와 같은 제사에 관해 기록해놓은 레위기는 모래를 씹는 것처럼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더 진도를 나가지 못하여 연초가 되면 창세기만 계속 읽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처음으로 언급한 곳은 창세기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3:15)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2장 2절은 마태복음 1장 1절과 관계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아브라함을 통하여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번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位)를 영원히 건고케 하리라”(삼하7:13) 이것은 역사적 예언이 아니고 영적인 예언으로서, 예수

인간의 역사도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무죄의 상태이고(창1:26), 두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상태이며, 세번째 단계는 상실한 상태에서 회복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단계로 나누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혈통이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기 때문에,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깨끗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법적 가계(家系)인 요셉의 족보를 보아도 그 혈통이 깨끗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은 주님의 탄생으로 성취되어져

곳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기 이전에는 혈통이 모두 순결하였기 때문에 족보를 중요시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음부터는 본토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 유대인들은 이들을 천대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중요시 했던 것이고, 유대인들의 족보를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관하였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대인들 못지 않게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족보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는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여자를 사관 취급도 않던 당시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다발, 라합, 룻 등 세 명의 이방 여자 이름을 함께 기록하였습니다. 즉 다발은 시아비지 유다와 동침하여 쌍둥이를 낳은 부정한 여자이고, 라합은 창녀이지만 예호수아의 정탐꾼을 숨겨주어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자이고, 룻은 모압 여자로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증조모가 된 여자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이방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간의 장벽이 무너졌고, 남자와 여자와의 장벽이 무너졌으며, 장자와 죄인과의 장벽이 무너졌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것입니다.

2절부터 15절까지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능동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수동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신실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 보면, 그들을 수도 없이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흥년이 들어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때 자기의 아내 사라로 인해 바로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사자를 자기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반에

하나 바로가 사자를 그의 첩으로 삼았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자를 구해주셨습니다. 그외에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배신하고 또 배신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살려주셨고 구원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구약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하여 450번이나 예언하고 있는데, 재림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맨 처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온 것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는 자들의 이상(理想)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되어진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장벽을 허무는 계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기는 성도들의 인내를 요구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을 하면서 깨달은 점은 다른 성경에 못지 않게 레위기도 풍부한 영적 양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전반부에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후반부에는 성령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성화의 비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레위기를 지나 구약을 다 읽고 신약에 접어들게 되면 마태복음 1장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또 지루한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1.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마1:1)

여기서, ‘세계’라는 말은 어떤 영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家系), 족보(族譜)’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 왕국이 영원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언약입니다.

또 소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였을 때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의미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좋구나.”라고 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박은 예수님을 창세기 12장 2절에서 예언하고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언약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 예수님의 족보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왜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이 족보는 14대씩 3단계로 나누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14라는 숫자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신성종 목사 저서 안내

신약총론	CIC
신약신학	CIC
요한계시록 강해	도서출판 엠마오
로마서 강해	도서출판 엠마오
사도행전 강해	도서출판 엠마오
기독교의 ABC	도서출판 엠마오
초급 헬라어	웅진출판사
신약역사	신행협회
엠마오 성경연구	도서출판 엠마오

● 총현논단 ●

사순절의 유래와 현대적 조명

김희수 목사(제13교구·중등2부 지도)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새벽기도와 저녁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관련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자세로 보내는 것이 주님의 고난을 의미있게 받아들이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생각해본다. 사순절 기간에 과거 초대 교회 성도들이 모든 오락이나 사치, 허영을 삼가하면서 절제 생활을 했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새롭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의 훈련의 기회로 삼는다면 영적 성숙에 있어서 더 없는 중요한 기간이라 할 수가 있겠다.

오늘(4월 12일)은 종려주일, 그 다음날(4월 13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된다. 고난주간이 끝나는 다음날은 부활주일(4월 19일)이다.

사순절 기간 동안 재(Ash)를 무릎쓰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지내도록 성도들 자신이 능동적으로 의미있게 보내야 하겠다고 교회에서는 사순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도들이 영적으로 재무장하여 십자가 군병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특별 집회를 가져보는 것이 어떤가 하고 생각해본다.

가능하다면 고난주간 금요일 하루 정도는 금식하며 나의 죄 위해 십자가 지시고 갈보리산으로 오르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 모욕과 멸시를 끝까지 참으시면서 말없이 희생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창에 찔려 한방울의 물과 피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주셨던 예수님을 그려보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생활 속에서 절제하며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가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리라 믿는다. (끝)

교구찬양대회 성료

지난 4월 5일 오후 3시 2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된 제6회 교구찬양대회는 3천여명의 교구찬양대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어 은혜롭게 끝났다.

이날 1부 예배는 교구위원장 손동운 장로 사회로 진행, 성경 히브리서 13장 15절 봉독 후 "입술의 열매"란 제목으로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설교했다.

2부 대회에서 최인근 목사의

시작 기도, 심사위원 소개와 심사 규정 설명이 끝난 후, 중창과 합창별로 대회를 가졌다.

부문별 입상 교구는 다음과 같다.

▲중창부문

민음상: 제11교구, 소망상: 제1교구, 사랑상: 제2교구

▲합창부문

민음상: 제4교구, 소망상: 제1교구, 사랑상: 제8교구

인도네시아 선교지 방문단 13일출발

선교지 순방, 부흥회 참석이 목적

세계선교위원회(위원장 남선우 장로)는 선교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순방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서만수 선교사 사역)로 위원장, 지도 목사, 선교위원들을 파견키로 하였다.

방문단은 내일(4월 13일) 출발하여 인도네시아의 선교 현황을 파악하고 현지인들의 영적 각성을 위하여 현재 미국 선교 여행 중인 당회장 신성종 목사와 만나 부흥회를 인도하고 18일(토) 귀국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들은 그곳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인도네시아 선교의 활성화를 위한 선교 정책

수립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게 된다.

◆ 방문자 명단

남선우, 이병학, 김창수, 강봉수, 김춘권, 이두란, 안윤진, 장영옥, 윤순진, 김근실, 정봉조, 강봉옥, 이석정, 서석임, 이의복, 김석운, 홍종락, 김연근, 김태연, 왕진숙, 이증영, 연화숙, 장원옥

주차스티커발급

●발급처: 관리국(교육관 102호)

●발급요령: 교적번호와 기존 등록번호를 관리국에 제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음향 기재

정비 기간

관리국에서는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향 기재들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정비는 오늘(4월 12일)부터 오는 19일(주일)까지 실시하며, 접수는 관리국에서 받는다. 부품 교환시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재를 함께 가져와야 한다.

직 원 모 집

- 직 종: 사무직(여자)
- 자 격: 세례교인
- 제출서류: 이력서, 교인증명서(타교인은 당회장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 제출기한: 4월 26일(주일)

고난당하는 중

(사52: 13~53: 12)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종은 지혜롭게 행할 것이며 크게 높임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랄 것이다. 이것은 그의 모습이 너무 상하여 사람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민족들이 그를 보고 신기하게 여길 것이며 왕들이 놀라서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니 그들이 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을 보고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와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으니 그에게는 풍채나 위엄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 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사람들 중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 그가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이 되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니 그를 통해 내 뜻이 성취될 것이다. 그는 자기 영혼이 고통을 당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강하고 위대한 자들의 영예를 그에게 주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쳐 범죄자처럼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이 용서받도록 기도하였다." ('현대인의 성경' 중에서)

장로칼럼

전도와 민족 복음화



김경철 장로
(제12교구장, 전도위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18~20)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전도의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민족 복음화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있는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충실히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의 일꾼으로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들을 사용하시어 많은 사람들을 사랑의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해주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신자들의 마음판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에, 거기에 싹이 트고 가지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향하신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달성하는 길이며, 복한 선교와 세계

선교의 사명까지도 감당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 교회에 부흥과 발전을 가져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민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도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며(잠15:33),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잠29:23)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겸손이 앞설 때 전도의 길이 열리고 민족 복음화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교만과 자만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전도는 커녕 그들의 마음을 닫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창인 원로목사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나 노인들에게나 할 것없이 사람들을 만나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하십니다. 이런 목사님의 겸손한 마음이 오늘의 총현교회를 만들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겸손한 자세로 전도에 임할 때 교회는 배가되고, 민족 복음화와 복한 선교, 더 나아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호 칼럼은 손경수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전국 교회에 알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전국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충현교회가 지난해 9월 이종윤씨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고 한국 교회에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 동안 부끄러움 속에 조용히 교회 갱신을 위해 노력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전국 교회가 기도해주신 덕분에 신성종

목사 안수받은 이종윤씨를 1988년 4월 충현교회 설교 사역자로 청빙한 바 있습니다.

청빙받은 이종윤씨는 총회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고시를 거부함으로써, 충현교회가 소속된 수도노회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위임목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충현교회는 교회법에도 없는 행정 보류라는 아픈 상처를 남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이종윤씨

이종윤씨의 도덕성과 신실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결정적인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입에 담기조차 역겨운 참으로 부도덕하고 부정직하고 불륜적인, 해피망 측한 일들로서, 여기에 기록하기가 어려워 생각하는 바입니다.

1991년 9월 17일 임시당회에서 이종윤씨를 사면시켰습니다.

한편 이종윤씨와 그 몇몇 장로들은 충현교회를 떠났으면서도 충현교회유지재단의 정관을 악용하여, 임원직을 고수하면서 교회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교회 재산을 가로채려했습니다. 또 충현교회가 재단법인의 임원을 개선하려는 일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충현교회에 보관하여 왔던 임원의 인감을 무효화하려는 목적으로 감독 관청의 승인도 없이 개인(改印)까지 했고, 정관에도 없는 상무이사 명칭의 업무 지시 문서를 충현교회 앞으로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충현교회 전 교인은 일제히 분개하여 일어났습니다. 충현교회의 재산은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요, 다음으로는 충현교회 교인 전체의 것입니다. 이에 충현교회 교인들은 저들의 흥계를 물리치기 위하여 교회 재산 지키기 기도회와 서명 운동을 펼치게 되었고, 그 결과 불과 3일만에 7,500여명이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1991년 12월 23일 신성종 목사를 제2대 위임목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전 교인은 이 일이 충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당회장을 모신 충현교회의 전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한국 교회와 충현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려, 보수신앙의 정도를 걷는 교회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전국 교회 성도들의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충현교회의 어려운 시련을 염려하시면서 가까이에서 혹은 멀리 해외에서 기도하셨던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충현교회가 겪은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한국 교회에 다시 없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종윤씨는 새로운 영적 각성과 아울러

교회 재산 가로채려는 음모 전 교인 기도로 막아내

목사를 당회장으로 모시고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의 불을 붙여가며 교회 배가운동을 전개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종윤씨는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자신의 잘못은 은폐하고 '지난 9월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은 사탄의 간교한 시험이었다. 김창인 목사가 다시 교회를 차치하기 위해서 나를 내어쫓았다. 충현교회의 당회는 불법을 저질렀다.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등 지금도 이 사건을 왜곡하여 전함으로써, 많은 의혹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간의 경위를 밝혀두는 것이 사건 마무리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교회의 입장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경과는 이렇습니다.

충현교회는 1953년 9월 6일에 설립되어 현재 원로목사이신 김창인 목사의 순교자적인 목회 방침 아래 성장해왔습니다.

김창인 목사가 1986년 원로목사로 추대되고, 미국 PCA에서

를 당회장으로 모시려 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충현교회는 이종윤씨가 총회의 고시를 거쳐 총회와 노회가 인정하는 위임목사가 되어주기를 기도하였고, 총회와 노회와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고자 했으나, 이종윤씨는 그 일을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종윤씨는 강도사 고시를 보지 않겠다고 공언해놓고도, 한편으로는 측근 장로를 통하여 서류를 작성, 총회고시부에 강도사 고시 원서를 접수시킨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총회의 적법한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강도사 고시 합격이 취소 당한 사실이 최근 교계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종윤씨가 재임한 3년 5개월 간은 충현교회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서 성도간에 갈등과 소외가 심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교회는 화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종윤씨의 도덕성과 신실성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991년 9월 17일 임시당회를 소집하여 이와 같은 이종윤씨의 행위에 대해 청문하였으며, 본인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시인했습니다. 당회는 이종윤씨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면 관대한 처분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를 외면했습니다. 이종윤씨는 사면된 후, 당회의

승인 없이 당시 박모 재정위원장이 부당하게 지출한 경비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 그곳에서 체류하다가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후에는 교회의 몇몇 장로들과 권사들이 충현교회를 분열시켜 설립해놓은 서울장로교회를 지금까지 맡아오면서 충현교회를 사탄의 집이라고 하는 등 온갖 말로 모욕하며 감언이설로 교인들을 자기들의 교회로 유인해갔습니다.

교회 재산을 가로채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관련자들을 출교 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충현교회가 새롭게 선정한 임원 명의로 재단법인 충현교회유지재단, 복지법인 충현복지재단, 제3목양관에 관한 등기를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아 1992년 3월 4일에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제2대 위임목사로 신성종 목사를 청빙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총회와 노회의 지도로

러 참다운 목회자상을 한국 교회 앞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전국 교회의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과 충고와 지도 편달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일들을 이상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992. 4. 11

충현교회 당회

살롬경로대학

92년도 제1학기 16일에 개강

“하나님 앞에 살자”를 주제로

살롬 경로대학(학장 신성종 목사)의 92년도 제1학기는 오는 4월 16일(목) 오전 11시에 갈릴리홀에서 개강한다.

수강생들로 하려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생활을 실천하며, 자신을 새롭게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도로서 교육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6월 18일까지 주제강의, 특별활동, 야외 학습, 전도 여행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면 불신자나 타교인도 수강이 가능하다. 접수는 현재 사무국(교육관 102호)이나 경로대학 사무실에서 받고 있다.

◆교육 시간표

시 간 일 자	제1교시		점 심	제2교시	제3교시
	11:00~11:50		12:00~12:50	13:00~13:50	14:00~14:50
4. 16	개 강 예 배			반편성, 학생회 임원 선출	
4. 23	주제강의	식 당	건강과 운동	각 부 별	
4. 30	야 외 학 습(한나양로원 방문)				
5. 7	주제강의	식 당	기초 치료법	각 부 별	
5. 14			기초 치료법		
5. 21			신 앙 간 증		
5. 28			노인의 언어		
6. 4	전 도 여 행(충현제교회/재현교회)				
6. 11	주제강의	식 당	바르고 기쁜 삶	각 부 별	
6. 18	종 강 예 배			교재의 시간	